1992년의 해는 기울지만…

한국 화학산업에 있어 1992년은 어떤 해였는가?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공통된 인식이겠지만, 쓰라림과 회한의 한 해였던 것은 분명할 것이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의 영향도 있겠으나, 무엇보다도 국내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각 수요산업 또한 침체를 거듭, 화학제품 수요가 줄었거나 증가율이 둔화돼 어려움을 겪었던 한 해였다.
다만, 동남아를 비롯 유럽 · 남미 등지로의 수출은 호조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수출 호조도 알고보면 별 것 아니었다는 결론 앞에 앞이 막막한 것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자동차가 유럽에 진출한 대신 전기 · 전자는 수출이 급속히 줄고 있고, 반도체 · 철강 역시 덤핑의 회오리 바람에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었다.
특히, 화학제품 중 합성수지류는 엄청난 양적 수출 호조속에 변동비에도 못미치는 저가 수출로 경영난에 압박을 가하고 있으며, 유럽 · 미국 · 일본 등 선진 화학기업 관계자들로 부터는 석유화학 산업을 망치는 이방인 취급을 받는 설움을 당했다.
물론, 이들 선진 화학기업들이 방만한 경영으로 가격경쟁력을 상실, 한국과 같이 저가 경쟁을 벌일 수 없어 수출전선에서 한 발 물러선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들이 영원히 우리와의 경쟁에서 뒤걸음질 치지만은 않을 것이다.
가격이 일정 수준으로 회복되면 다시 경쟁에 뛰어들고, 그 때에는 우리와 피나는 싸움을 벌일 것은 자명한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장기적 안목에서 한국 화학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하고, 화학기업 뿐만 아니라 산 · 관 · 연이 일체가 되어 타개방안을 연구해야 하리라 믿는다.
다만, 여기에는 기업의 사적 이익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기업자세 · 경영자세가 필요하리라 본다.
근래 석유화학 산업이 궁지에 몰리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나만 살자」는 식의 대결구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고, 이러한 의식에서 한 발 나아가 「다같이 살아야 한다」는 의식으로 전환될 때 현명한 지혜가 떠오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석유화학 산업계가 주의해야 할 점은 「경쟁력이 약한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강자 지배적 · 배타적 기업경쟁 논리로 이는 절대 배척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기업의 경쟁력이 취약할 수는 있으돼 결코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며, 설혹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면 「이판사판」의 이전투구를 벌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세 가지의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공장가동을 중지하기 전까지 판로 확대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고, 가격을 대폭 인하해 내수 및 수출에 임하게 되면 특정기업 제품가격 하락에 머물지 않고 국내 석유화학제품 가격 전반이 변동비에도 훨씬 못미치는 선까지 하락, 대부분 기업 특히 합성수지 기업들의 채산성을 극도로 악화시켜 국내 석유화학산업 전반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둘째, 특정기업이 스스로의 자생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합작기업으로 한국측 경영진의 대처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면 합작 상대방이 경영에 적극 나설 것이고, 이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에 외국기업을 끌어들이는 오류를 범해 오히려 결속을 저해 또는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특히, 국내에는 일본과의 합작이 많고, 최근 마루베니 · 미쓰이 등 일본기업들의 경영참여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을 직시, 이를 방지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만약, 이들 일본기업들이 경영부실을 이유로 내세워 본격 진출(경영 참여)할 경우 수 조원을 투자해 일본의 파워만 키워주는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셋째,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난타전을 벌이면서 부실화될 경우 정부의 관여가 눈에 보이고, 정부의 관여는 산업의 효율화와는 거리가 있는 결과를 유도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로비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경영을 정상화시킬 수 있다면, 즉 정상적인 · 비특혜적인 경영을 원한다면 정부가 적극 관여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 지적한 바, 한국 화학산업은 힘에 겨워 1992년을 보냈지만, 1993년 또한 전도가 다난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 발씩 양보」하면서 「다같이 존립」하는 기틀을 다지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화학저널 1992/12/15>